

자료해석영역

1. 다음 <표 1>과 <표 2>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시장 주요지표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금융시장 주요지표, 2005년 1월 12일 발표

구 분	04년말	05. 1. 4	05. 1. 5	05. 1. 6	05. 1. 7	05. 1. 10	05. 1. 11
		(화)	(수)	(목)	(금)	(월)	(화)
종합주가지수	895.92	886.90	885.19	871.28	870.84	874.18	884.29
거래량(만주)	24,858	33,163	34,314	39,470	29,480	27,596	36,443
거래대금(억원)	16,937	17,888	20,629	24,877	19,826	16,713	22,117
KOSDAQ지수	380.33	393.00	399.68	404.15	408.17	418.71	416.56
거래량(만주)	27,490	35,452	42,985	57,441	43,850	43,391	46,077
거래대금(억원)	6,203	9,733	10,128	15,455	13,871	13,673	13,126
환율(₩/\$)	1,035.10	1,038.70	1,046.30	1,058.80	1,051.10	1,053.70	1,045.10

〈표 2〉 금융시장 주요지표, 2006년 1월 12일 발표

	05년말	06. 1. 4	06. 1. 5	06. 1. 6	06. 1. 9	06. 1. 10	06. 1. 11
		(수)	(목)	(금)	(월)	(화)	(수)
종합주가지수	1,379.37	1,402.11	1,395.51	1,412.78	1,408.33	1,396.29	1,394.09
거래량(만주)	44,593	52,799	53,807	58,787	53,149	47,650	53,460
거래대금(억원)	53,542	69,592	68,995	62,153	61,579	58,485	53,400
KOSDAQ지수	701.79	740.48	736.66	747.10	753.88	744.71	744.17
거래량(만주)	66,362	91,128	78,144	76,101	77,557	77,038	67,116
거래대금(억원)	24,372	37,414	29,665	32,041	33,128	33,299	28,455
환율(₩/\$)	1,011.60	998.50	987.30	988.10	977.50	982.10	984.60

· < 보 기 > -

- ㉠. KOSDAQ 지수의 경우, 2년 연속 전년 말과 비교하여 다음 해 연초에 높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 2006년 초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면 KOSDAQ 지수 또한 상승하고,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면 KOSDAQ 지수 또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2005년 초에는 2004년 말과 비교하여 높은 환율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06년 초에는 2005년 말과 비교하여 낮은 환율 수준을 유지하였다.
- ㉣. 2005년 말 KOSDAQ에서 거래된 1주당 평균거래금액은 2004년 말 KOSDAQ에서 거래된 1주당 평균거래금액과 비교하여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 ① ㄱ, ㅈ
② ㄴ, ㅊ
③ ㄱ, ㅈ, ㅋ
④ ㄴ, ㅊ, ㅋ
⑤ ㄱ, ㄴ, ㅈ, ㅋ

2. 다음 <표>는 연도별 청소년인구 추계, 연령별 청소년범죄 현황, 남녀별 청소년범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연도별 청소년인구 추계

(단위 : 명)

연도	청소년인구 (12세~19세)	12세~13세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5,711,899	648,966	584,906	679,311	623,418	778,655	689,900	860,928	815,341
2001	5,465,160	652,467	579,124	653,270	594,594	721,144	637,024	827,265	774,485
2002	5,260,552	665,591	586,067	643,105	580,053	673,741	602,364	775,480	717,421
2003	5,143,358	692,471	610,235	646,642	574,401	648,189	579,432	719,560	661,213

〈표 2〉 연령별 청소년범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청소년범죄자	12세~13세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인 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2000	151,176	1,649	1.1	33,047	21.8	53,324	35.3	63,156	41.8
2001	138,030	1,656	1.2	27,606	20.0	45,964	33.3	62,804	45.5
2002	123,921	1,798	1.5	25,385	20.5	41,161	33.2	55,577	44.8
2003	104,158	1,578	1.5	15,888	15.3	33,971	32.6	52,721	50.6

〈표 3〉 남녀별 청소년범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청소년범죄자	남 자		여 자	
	인 원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2000	151,176	131,444	86.9	19,732	13.1
2001	138,030	116,235	84.2	21,795	15.8
2002	123,921	103,384	83.4	20,537	16.6
2003	104,158	86,381	82.9	17,777	17.1

- < 보 기 >

- ㄱ. 2000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할 때, 청소년범죄자 중 남자청소년 범죄자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여자청소년 범죄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 ㄴ. 2000년도와 비교해서 2003년도 청소년범죄자 중 15세 이하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18세~19세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 ㄷ. 12세~13세의 청소년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0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
- ㄹ. 14세~15세의 청소년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0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 ㅁ. 여자청소년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0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

- ① ㄱ, ㅈ
② ㄴ, ㄷ
③ ㅊ, ㅋ
④ ㅌ, ㅍ
⑤ ㅅ, ㅇ

3. 다음 <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나타낸 통계 자료이다. 이 <표>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단, 사망자수의 단위는 명이며, 사망률은 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평균 사망자수를 나타낸다.)

〈표〉 자살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현황

시점	자 살		질 병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1995	4,840	11.8	34,132	75.4
1996	5,856	14.1	34,368	75.1
1997	6,022	14.1	32,459	70.5
1998	8,569	19.9	32,011	68.9
1999	7,075	16.1	29,947	63.5
2000	6,460	14.6	28,874	60.7
2001	6,933	15.5	28,736	60.0
2002	8,631	19.1	28,834	59.9
2003	10,932	24.0	31,558	65.3
2004	11,523	25.2	30,567	63.0

- < 보 기 >

ㄱ.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1998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지만 200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ㄴ. 자살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추세에 대한 분석은 인구 증가율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표>의 자료는 인구 증가율을 함께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ㄱ”의 주장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ㄷ.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5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3년에 증가하였다.

ㄹ. 2001년과 비교하여 2002년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서 사망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사망률이 감소한 원인은 5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 ① $\neg$, $\vdash$

③ $\neg$, $\vdash$, $\vdash$

⑤ $\vdash$, $\vdash$, $\vdash$

② $\vdash$, $\vdash$

④ $\neg$, $\vdash$, $\vdash$

4. 다음은 주택을 이미 마련한 한국인들의 주택마련시기와 주택구입자금 마련방법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1> 주택마련시기

구 분	주택마련가구 (%)	결혼 전(%)	결혼 후(%)	평 균 소요년수
2001년	100.0	15.8	84.2	10년 9개월
2004년	100.0	14.2	85.8	10년 1개월
동 부	100.0	13.2	86.8	10년
읍 면 부	100.0	18.2	81.8	10년 7개월
15~29세	100.0	69.9	30.1	1년 6개월
30~39세	100.0	26.1	73.9	4년 7개월
40~49세	100.0	11.0	89.0	8년 4개월
50~59세	100.0	9.1	90.9	12년
60세이상	100.0	9.9	90.1	14년4개월

<표 2> 주택구입자금 마련방법

	주택마련 가 구	주 택 마 려 난 방 법 (%)						
		부모 및 친척보조	저축 (계포함)	융자 및 사채	증여 및 상속	재산매각	퇴직금 및 보상금	기타
2001년	100.0	13.8	49.2	16.7	15.5	2.5	1.8	0.7
동 부	100.0	14.5	54.1	18.6	7.9	2.3	1.9	0.6
읍 면 부	100.0	11.6	35.1	10.7	37.5	3.1	1.2	0.9
2004년	100.0	14.8	50.5	19.1	11.8	1.6	2.0	0.2
동 부	100.0	15.0	53.5	20.5	7.0	1.7	2.1	0.2
읍 면 부	100.0	14.1	38.6	13.7	30.8	1.4	1.3	0.1
결 혼 전	100.0	25.9	28.2	11.3	32.7	0.8	0.8	0.3
결 혼 후	100.0	13.0	54.2	20.4	8.4	1.7	2.2	0.2

- 읍면부의 결혼 전 주택마련 비율이 동부의 경우보다 높은 것은 읍면부에서 증여나 상속을 통한 주택마련이 더 많기 때문이다.
- 결혼 전에 주택을 마련한 가구 중에서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15~29세의 연령집단에 속한 가구가 가장 많다.
-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읍면부와 동부 모두에서 융자 및 사채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향이 약간 감소하였다.
- 젊은 연령집단일수록 평균 주택마련 소요년수가 짧아지므로 앞으로 한국인들의 주택마련 소요년수는 계속 짧아질 것이다.
- 2001년과 2004년 양 해에 주택을 마련한 가구 중 절반 정도가 저축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였다.

5. 다음의 두 자료는 지난 12년동안 업종별 화물자동차 대수와 관용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비중 추이를 가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통계자료의 일부 수치들이 누락된 것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볼 때, 1993년에 비하여 1999년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대략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단, 100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을 고르시오.)

<표> 업종별 화물자동차 대수

(단위 : 대)

연도	업종	화 물 자 동 차			
		비영업용			총 계
		관 용	자가용	소 계	
1991					1,077,467
1992					1,261,522
1993					1,448,634
1994					1,644,646
1995					1,816,582
1996					1,962,564
1997					2,072,256
1998					2,104,683
1999					2,298,288
2000					2,510,992
2001					2,728,405
2002					2,894,412

<그림> 관용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비중 추이

- ① 약 750,000대

② 약 755,000대
- ③ 약 760,000대

④ 약 765,000대
- ⑤ 약 770,000대

6. 다음 <그림>과 <표>는 어떤 나라 노인들의 세대구성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본다.)

<그림>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2000년)

<표>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단위 : %)

구 분	1990년	2000년	65~69세	70~79세	80세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세대가구	16.9	28.7	35.5	27.5	12.8
2세대가구	23.4	23.9	27.3	19.9	26.5
3세대이상가구	49.6	30.8	23.2	33.3	45.1
1인가구	8.9	16.2	13.7	18.9	15.0
비혈연가구	1.2	0.4	0.4	0.5	0.5

< 보 기 >

- 이 나라에서 3세대 이상 가구가 세대구성 형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00년 전체 노인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 2000년의 2세대 가구수는 1990년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① ㄱ

② ㄴ
- ③ ㄱ, ㄴ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7. 다음은 제조업 부문별 재무구조 관련 자료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제조업 재무구조 관련 주요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7말	1998말	1999말	2000말	2001말	2002말
부채비율	396.3	303.0	214.7	210.6	182.2	135.4
자기자본비율	20.2	24.8	31.8	32.2	35.4	42.5
차입금의존도	54.2	50.8	42.8	41.2	39.8	31.7

주1) 부채비율=(부채 / 자기자본)×100
주2)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본)×100
주3) 차입금의존도=((차입금+회사채) / 총자본)×100

<표 2> 제조업 부문별 재무구조 관련 지표
(단위 :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2002말	2003말	2002말	2003말	2002말	2003말
제조업	135.4	123.4	31.7	28.3	42.5	44.8
└ 대기업	128.9	113.5	31.2	25.9	43.7	46.8
└ 중소기업	152.1	147.6	32.9	33.5	39.7	40.4
└ 수출기업	125.3	115.3	29.3	24.5	44.4	46.4
└ 내수기업	140.6	129.7	32.9	31.1	41.6	43.5

ㄱ. 2003년 말 제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2002년 말에 비해 낮아진 것은 중소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ㄴ. 제조업 부문의 경우 1997년 이래 부채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ㄷ. 2002년과 2003년 모두에 있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낮고 자기자본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ㄹ. 2003년 중소기업은 차입금의존도가 2002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가운데 부채비율의 하락폭이 대기업의 약 1/3 수준에 그쳤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8. 천문학에서는 별의 밝기를 등급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등급의 값이 작을수록 별은 밝게 보인다. 맨눈으로 밤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은 대략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별이라고 한다. 또한 맨눈보다 구경이 큰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면 더 희미한 별까지 관측 가능하다. 망원경의 구경 크기에 따라 얼마나 희미한 별까지 밤하늘에서 관측 가능한지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다음 <표>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망원경의 구경 직경	맨눈(동공 크기=5mm)	5cm	50cm	5m
관측할 수 있는 가장 희미한 등급	6등급	11등급	16등급	21등급
밝 기	100	1	1/100	1/10,000

주) 11등급 별의 밝기를 1로 하여 기준으로 삼음.

- ① 망원경의 구경 면적이 100배 넓어지면 그 이전보다 밝기가 1/100배의 별을 관측할 수 있다.
- ② 맨눈으로 관측할 때에 비해 구경 직경 5m인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밝기가 1/10,000배의 별까지만 관측할 수 있다.
- ③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100배 밝다.
- ④ 맨눈의 동공 크기를 망원경의 구경 직경같이 취급하였다.
- ⑤ 구경 직경 5cm인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에 비해 구경 직경 50m인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밝기가 1/1,000,000배의 별을 관측할 수 있다.

9. 다음은 한국의 인구구성비 및 부양비의 추이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한국의 인구구성비 및 부양비의 추이

구분	총인구	유년인구 (0~14세)	생산가능 인구 (15~64세)	노년인구 (65세이상)	노년인구 구성비 (%)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1992	43,747,962	10,791,426	30,610,680	2,345,856	()	42.9	35.3	7.7
1994	44,641,540	10,653,446	31,445,602	2,542,492	5.7	42.0	33.9	8.1
1996	45,524,681	10,403,277	32,326,522	2,794,882	6.1	40.8	32.2	8.6
1998	46,286,503	10,091,517	33,125,933	3,069,053	6.6	39.7	30.5	9.3
2000	47,008,111	9,911,229	33,701,986	3,394,896	7.2	39.5	29.4	10.1
2002	47,615,132	9,725,532	34,110,668	3,778,932	7.9	39.6	28.5	11.1
2004	48,082,163	9,417,397	34,482,994	4,181,772	8.7	39.4	27.3	12.1
2006	48,497,166	9,026,009	34,873,924	4,597,233	9.5	39.1	25.9	13.2
2008	48,877,252	8,522,506	35,334,209	5,020,537	10.3	38.3	24.1	14.2
2010	49,219,537	8,012,990	35,852,347	5,354,200	()	()	()	()
2012	49,509,512	7,541,068	36,205,397	5,763,047	11.6	36.7	20.8	15.9
2014	49,724,180	7,126,218	36,367,430	6,230,532	12.5	36.7	19.6	17.1
2016	49,862,489	6,720,959	36,495,586	6,645,944	13.3	36.6	18.4	18.2

주1) 인구는 200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바뀔 수 있음.
주2) 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0~14세)와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 <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주3) 유년부양비 = (유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주4) 노년부양비 = (노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ㄱ. 2010년의 노년부양비는 약 15%이다.
ㄴ. 1992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유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각각 감소하고, 노년인구 구성비는 증가할 것이다.
ㄷ. 노년인구 구성비는 2016년에는 1992년보다 약 8%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ㄹ. 1992년 이래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변화추세로 볼 때, 2016년 이후로도 한국의 총부양비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다음은 우리나라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통계이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혼인과 이혼 관련 통계

연도	혼인수(건)	조혼인율(‰)	이혼수(건)	조이혼율(‰)	혼인대비 이혼율(%)
1980	403,031	10.6	23,662	0.6	5.9
1985	376,847	9.2	38,838	1.0	10.3
1990	399,312	9.3	45,694	1.1	11.4
1995	398,484	8.7	68,279	1.5	17.1
2000	334,030	7.0	119,982	2.5	35.9
2004	310,944	6.4	139,365	2.9	44.8

주1) 조혼인율=(혼인수 / 당해연도 인구) × 1000
주2) 조이혼율=(이혼수 / 당해연도 인구) × 1000
주3) 혼인대비 이혼율=(이혼수 / 혼인수) × 100

ㄱ. 1980년 이래 2004년까지 매해 조혼인율은 감소하고, 조이혼율은 증가하였다.
ㄴ. 1980년과 비교하여 2004년에 혼인수는 감소하였고, 이혼수는 증가하였다.
ㄷ. 혼인대비 이혼율의 가능 수치는 최소 0%에서 최대 100%이다.
ㄹ. 혼인대비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조이혼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조혼인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14. 다음 <표>는 지난 10여년간 국내 도시가스 소비 추이를 용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용도별 도시가스 소비 추이

(단위 : 백만 m³)

구 분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합계	도시가스용 LNG 소비량
1992년	1,250(59.2)	504(23.8)	359(17.0)	2,114	1,544
1995년	3,481(65.3)	1,025(19.2)	822(15.4)	5,327	4,219
1998년	5,076(62.0)	1,391(17.0)	1,726(21.1)	8,194	7,708
2001년	7,168(55.7)	2,261(17.6)	3,429(26.7)	12,859	12,645
2003년	8,124(54.3)	2,869(19.2)	3,978(26.6)	14,972	14,784
증가율(%)	18.5	17.1	24.4	19.5	22.8

주) ()는 점유율(%), 증가율(%)은 1992년 ~ 2003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임.

· < 보 기 > -

- ㄱ. 지난 10여년간 도시가스 소비는 연평균 22.8%의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 ㄴ. 1990년대 초반에 도시가스 소비를 주도한 것은 가정용과 산업용이라고 할 수 있다.
- ㄷ. 지난 10여년간 도시가스 소비에서 LNG 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높아졌다.
- ㄹ. 지난 10여년간 다른 용도에 비해 가정용의 소비량 증가율이 높아 가정용 소비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 ㅁ. 상업용 소비의 점유율은 1992년에 23.8%였으나, 다른 용도에 비해 소비량의 증가율이 낮아 2003년에는 소비 비중이 낮아졌다.

- ① ㄱ, ㄴ ② ㄱ, ㅈ
③ ㄴ, ㅈ ④ ㅈ, ㅊ
⑤ ㅈ, ㅉ, ㅊ

15. 다음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취업자는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였거나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자”로 정의하고, 실업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자리가 있었다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로 정의한다. 실업자가 아닌 미취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의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습니까? 1. 일하였음(5번으로) 2. 일시휴직 3. 구직활동 4. 육아/가사 5. 통학 6. 취업준비 7. 쉬었음 8. 기타()	4.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질문 끝)
2.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무급으로 가구원의 일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5번으로) 2. 없었음	5. 지난 주에, 총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1.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3번으로) 2.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3. 유급으로 1~35시간 4. 유급으로 36시간 이상
3.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음(계속) 2. 구해 보지 않았음(끝)	6. 지난 4주내에, 다른 직장(일)을 찾아 본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질문 끝)

※ 설문은 번호순에 따라 응답하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 보 기 > -

ㄱ. 취업자는 반드시 2번 문항과 5번 문항에 응답해야 한다.
 ㄴ. 취업자는 최소 3개 문항에 응답하게 된다.
 ㄷ. 실업자는 3번 문항을 포함해서 최대 4개 문항에 응답을 하게 된다.
 ㄹ.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개인은 반드시 1, 2, 3번 문항에 응답을 하게 된다.
 ㄹ. 6번 문항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판별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다.

- | | |
|-------------------------------|--------------------------|
| ① $\neg, \perp$ | ② $\perp, \square$ |
| ③ $\sqsubset, \sqsupset$ | ④ $\neg, \perp, \square$ |
| ⑤ $\perp, \sqsupset, \square$ | |

16. 다음 <표 1>과 <표 2>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간한 교육지표 중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졸업자가 해당연령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연령별 고등학교 졸업자 인구 비율(2002)

구 분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 국	71	95	79	51	31
일 본	84	94	94	82	64
캐나다	83	89	86	82	69
체 코	88	94	91	85	80
독 일	83	85	86	84	77
미 국	87	87	88	89	84
영 국	64	70	65	62	56
프랑스	65	79	68	60	48
OECD 국가평균	65	75	69	61	50

〈표 2〉 연령별 고등교육 졸업자 인구 비율(2002)

구 분	B유형 고등교육(%)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 국	8	15	7	2	1	18	26	21	11	8
일 본	16	25	20	12	7	20	25	25	19	11
캐나다	22	25	23	21	16	21	26	20	20	16
스웨덴	15	17	18	14	10	18	22	16	17	16
벨기에	15	20	16	13	10	13	18	13	11	8
프랑스	12	17	12	9	6	12	19	11	10	9
독 일	10	8	11	11	10	13	13	15	14	11
영 국	8	8	9	8	7	19	23	18	18	13
미 국	9	9	10	10	7	29	31	29	30	26
OECD 국가평균	8	9	8	7	5	16	19	16	14	11

주1) 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주2)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의 석/박사 과정 등이 포함됨.

주3) B유형 고등교육과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과정을 둘 다 졸업한 경우는 없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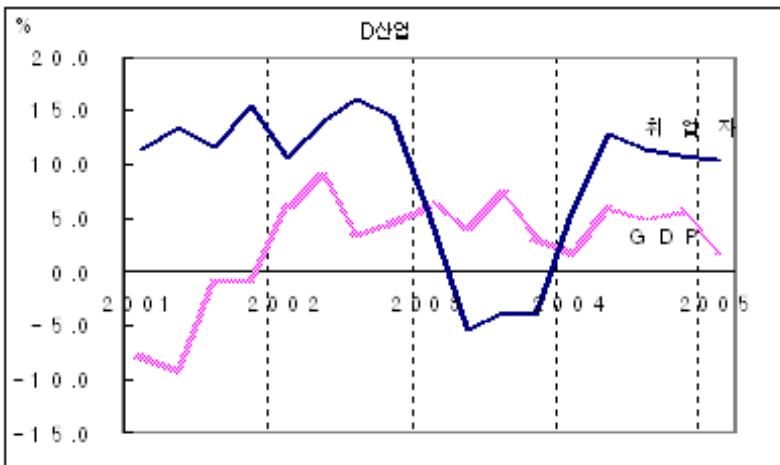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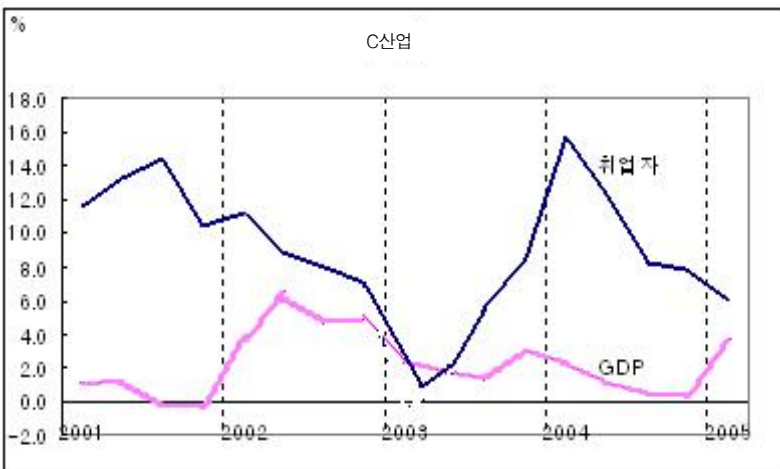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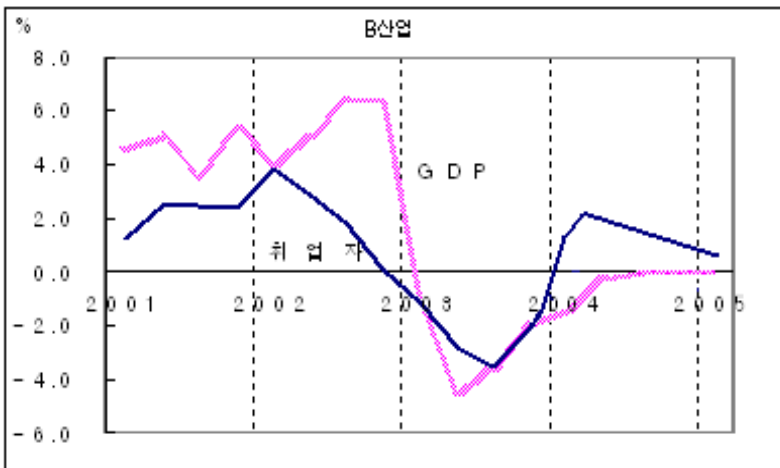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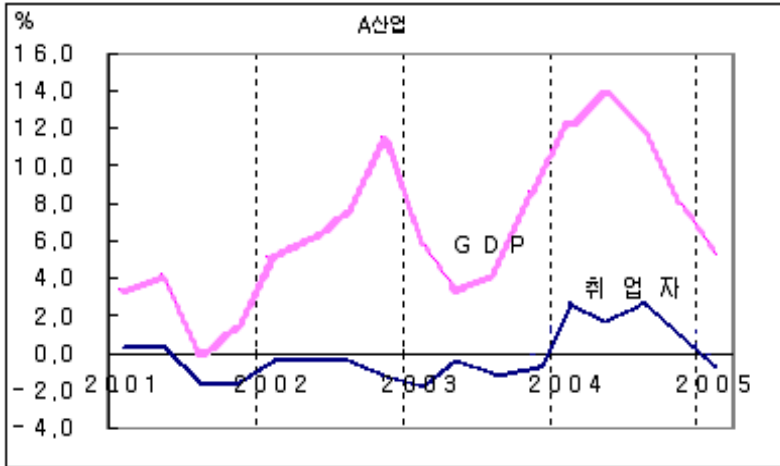
- < 보 기 > -

- ㉠. 25세~64세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인구 비율은 OECD 국가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25세~64세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졸업자 인구 비율은 OECD 국가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45세~64세 성인 인구의 고등학교 졸업자 인구 비율은 OECD 국가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 ㉣. 25세~34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고등교육 졸업자 인구 비율은 OECD 국가평균이 28%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1%로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 ㉤. 25세~64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졸업자 인구 비율보다 B유형 고등교육 졸업자 인구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 ㉥. 25세~64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졸업자 인구 비율이 B유형 고등교육 졸업자 인구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 | |
|-------------------------------|-------------------------------|
| ① $\neg, \exists$ | ② $\neg, \perp, \square$ |
| ③ $\neg, \sqsubset, \exists$ | ④ $\neg, \sqsubset, \boxplus$ |
| ⑤ $\perp, \sqsubset, \exists$ | |

17.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주요 4개 산업에 대해서 GDP(생산)증가율과 취업자(고용)증가율을 분기별로 나타낸 것이다(2001년 1/4분기~2005년 1/4분기).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단, <그림>에서 Y축선부터 첫 번째 점선까지가 2001년(1/4~4/4분기), 첫 번째 점선부터 두 번째 점선까지가 2002년, 두 번째 점선부터 세 번째 점선까지가 2003년, 세 번째 점선부터 네 번째 점선까지가 2004년, 그 다음은 2005년 1/4분기를 의미함)

〈그림〉 주요 산업의 생산과 고용 변동추이



주) 증가율은 전년동일분기 대비임.

- < 보 기 >

7. A산업은 2002년 이후,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자의 수는 2004년을 제외하면 감소하였다.
- ㄴ. 2002년에 생산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산업은 B산업이다.
- ㄷ. 2004년에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C산업이고 가장 적게 증가한 산업은 B산업이다.
- ㄹ. C와 D산업에서는 2003년을 제외하면 2001년 이래 고용증가율이 생산증가율보다 높다.
- ㅁ. 전년동기 대비 2003년 4/4분기에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C산업뿐이었으나, 전년동기 대비 2004년 4/4분기에는 전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 ① $\neg$, $\exists$
② $\neg$, $\square$
③ $\exists$, $\square$
④ $\neg$, $\exists$, $\square$
⑤ $\neg$, $\forall$, $\exists$

18. <표 1>과 <표 2>는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의 자녀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또한 <표 2-1>은 <표 2>에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항목에 답을 한 미혼남녀에게 그 항목에 답한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한 결과이다.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표 1〉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

(단위 : %, 명)

연도	만드시 있어야 함	만드시 있을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
		소개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	90.3	8.5	8.5	-	1.2	100.0(7,448)
1997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	54.5	44.9	32.3	12.6	0.6	100.0(6,593)

〈표 2〉 미혼남녀의 특성별 자녀관

(단위 : %, 명)

특성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음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	꼭 있어야 함	생각해 보지 않았음/ 모르겠음	계
전체	19.3	41.1	37.4	2.2	100.0(4,043)
남자	17.4	38.3	42.0	2.3	100.0(2,284)
여자	21.7	44.8	31.4	2.1	100.0(1,759)

〈표 2-1〉 미혼남녀의 특성별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유

(단위 : %, 명)

특 성		부부중심의 생활영위를 위해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사회적 성취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생각해보지 않았음 / 모르겠음	계
전 체		51.5	18.4	6.7	8.2	0.5	14.7	100.0(761)
성별	남	62.1	9.0	6.4	7.2	-	15.3	100.0(391)
	여	40.3	28.4	7.0	9.2	1.1	14.1	100.0(370)
연령	18-19세	41.9	16.2	7.6	13.3	1.0	20.0	100.0(105)
	20-24세	44.4	20.2	5.6	11.9	0.7	17.2	100.0(268)
	25-29세	56.9	18.0	7.7	4.1	1.0	12.3	100.0(195)
	30-34세	59.7	14.4	9.3	6.5	-	10.1	100.0(139)
	35-39세	63.1	24.6	-	-	-	12.3	100.0(57)

- < 보 기 >

- 가.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나. 기혼여성이 느끼는 자녀의 필요성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
다. 미혼남성은 미혼여성보다 부부중심의 생활을 위해 자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미혼남성일수록 이런 경향이 높다.

- | | |
|------------------|-----------------|
| ① $\neg$ | ② $\perp$ |
| ③ $\neg, \perp$ | ④ $\neg, \perp$ |
| ⑤ $\perp, \perp$ | |

19. 다음은 통계청에서 전국의 2인 이상 근로자가구 및 근로자의가구(자영자가구, 무직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 3/4분기 기준 가계소득관련 자료이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가구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에 대한 <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우리나라 가구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당 평균소득(천원) (1분위 기준배율)	806.1 (1.0)	1,770.0 (2.20)	2,514.0 (3.12)	3,460.3 (4.29)	5,885.7 (7.30)
가구당 평균소비지출(천원) (1분위 기준배율)	1,015.7 (1.00)	1,525.5 (1.50)	1,847.4 (1.82)	2,270.5 (2.24)	3,223.1 (3.17)
소비지출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3.7	31.2	30.6	28.4	25.4
(외식)	10.0	12.4	13.5	13.3	12.1
주거	5.5	4.0	3.1	2.9	2.5
광열수도	5.4	4.2	3.8	3.3	2.7
가구가사용품	3.6	3.4	3.8	4.0	4.6
피복신발	3.6	3.9	3.9	4.3	4.8
보건의료	6.2	5.3	4.6	4.1	4.4
교육	8.4	11.5	12.8	14.2	14.2
교양오락	4.1	4.2	4.4	4.8	6.1
교통통신	16.0	17.7	17.2	18.1	15.9
(통신)	7.6	7.5	7.3	6.9	5.3
기타소비지출	13.6	14.4	15.7	15.9	19.3
(잡비)	9.6	10.3	11.7	12.2	15.6

- ① 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료품 및 주거, 광열수도 지출비율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1분위와 5분위간의 평균소득수준의 격차는 약 7.3배이고, 평균소비지출의 격차는 약 3.2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③ 평균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교육비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5분위의 해당 지출의 구성비는 1분위에 비해 5.8%p가 높다.
- ④ 1분위의 가구당 평균소비지출은 해당 가구당 평균소득을 상회하며, 이는 다른 분위에 비해 저축의 여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 ⑤ 보건의료비와 교통통신비 지출을 사회적 지출로 연결하는 노력은 빈부격차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될 것이다.

20. 다음 <표>는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계급별 인력구성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경찰의 계급별 인력구성

구분	상위직		중간관리직			하위직		
	경무관 이상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인원(명)	57	396	1,216	2,027	8,849	11,659	30,254	37,134
비율(%)	0.1	0.4	1.3	2.2	9.7	12.7	33.0	40.5
	0.5		13.3			86.2		

〈표 2〉 직급별 인력비율 비교

구분	3급 이상 〈경무관 이상〉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경감·경위〉		7급 〈경사〉	8급 〈경장〉	9급 〈순경〉
일반공무원(A)	1.5	4.9	9.5	26.3		22.2	22.1	12.4
경찰공무원(B)	0.1	0.4	1.3	2.2	9.7	12.7	33.0	40.5
차(A-B)	+1.4	+4.5	+22.6			-28.5		

주) < >안은 일반공무원 동등 직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직급임.

〈표 3〉 평균적인 승진소요기간 및 연보수액 비교

구 분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승진소요기간 비교	9급→8급 〈순경→경장〉	4.1년	4.5년
	8급→7급 〈경장→경사〉	6.1년	5.2년
	7급→6급 〈경사→경감〉	6.9년	14.4년
	계	17.1년	24.1년
연보수액 비교	1년차(초임)	12,342천원	13,456천원
	5년차	16,517천원	16,640천원
	10년차	22,379천원	21,511천원
	20년차	32,814천원	30,060천원
	30년차	38,175천원	34,903천원

주1) 연보수액 비교시 초임은 일반공무원은 9급, 경찰공무원은 순경 입직시를 기준으로 함.
주2) < >안은 일반공무원 동등 직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직급임.

- < 보 기 >

- ㉠. 전체 경찰공무원 중 하위직이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직은 453명으로 이는 전체 경찰공무원 중 0.5%에 해당한다.
- ㉡. 경찰공무원 중 경정·경감·경위의 수는 일반공무원 5·6급의 수에 비해 약 22.6%가 적고, 경사 이하의 수는 일반공무원 7급 이하의 수에 비해 약 28.5%가 많다.
- ㉢.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으로 입직하여 경사로 승진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적인 기간은 일반공무원(9급→7급)에 비하여 길다. 일반공무원이 9급으로 임용되어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17.1년이 걸리는데 반해, 경찰공무원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감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24.1년이 걸린다.
- ㉣.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 입직시 연보수액은 일반공무원 9급보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10년차에는 역전이 되어 있고, 30년차에는 일반공무원보다 약 327만원이 적다.

- ① $\perp$
 - ③ $\neg, \perp$
 - ⑤ $\perp, \sqsubset, \sqsupset$
 - ② $\sqsubset$
 - ④ $\perp, \sqsubset$

21. 행정자치부는 매년 약 150~230여개의 전국사업과 1,200~1,600여개의 지방사업에 대하여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 <표>에 근거하여 볼 때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표〉 2004년도 지원사업 및 신청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유 형 별	신 청 내 역			선 정 내 역		
	단체수	사업수	금액	단체수	사업수	금액
계	444	478	29,944	152	154	5,000
국민통합	66	72	5,120	20	20	827
문화시민사회구축	58	65	4,019	16	16	650
자원봉사	29	32	2,025	17	17	328
안전문화/재해재난	35	34	2,563	16	16	440
인권신장/소외계층보호	80	84	4,737	25	27	805
자원절약/환경보전	55	63	3,814	13	13	700
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	68	73	4,299	30	30	755
국제교류협력	53	55	3,295	15	15	495

- ①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선정비율은 약 50%에 불과하다.
- ② 신청 단체수, 사업수, 금액 면에서 인권신장/소외계층보호 관련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③ 인권신장/소외계층보호, NGO기관구축/시민참여확대 등이 신청건수와 선정건수에서 모두 다른 유형들에 비해 많았다.
- ④ 모든 분야에서 신청 단체수보다는 신청 사업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선정된 경우보다 신청한 경우가 사업수와 단체수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다음 <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표〉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본금 추이
(단위 : 개소, 명, 억원)

구분	연도	사업체수 (A)	종사자수 (B)	자본금 (C)	업체당 종사자수 (B/A)	업체당 자본금 (C/A)
정보통신 서비스	1999	5,070	99,348	78,051	19.6	15.4
	2000	5,037	104,574	98,321	20.8	19.5
	2001	5,784	106,721	102,673	18.5	17.8
	2002	5,477	113,668	96,697	20.8	17.7
정보통신 기기	1999	5,066	280,601	308,783	55.4	61.0
	2000	4,882	339,356	409,045	69.5	83.8
	2001	5,426	270,458	429,700	49.8	79.2
	2002	7,121	340,149	1,110,067	47.8	155.9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1999	2,247	62,680	15,152	27.9	6.7
	2000	4,025	96,292	26,566	23.9	6.6
	2001	5,442	118,495	34,299	21.8	6.3
	2002	5,601	130,928	39,936	23.4	7.1
계	1999	12,383	442,629	401,986	35.7	32.5
	2000	13,944	540,222	533,932	38.7	38.3
	2001	16,652	495,674	566,672	29.8	34.0
	2002	18,199	584,745	1,246,700	32.1	68.5

- 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1999년 대비 2000년의 사업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기기’이다.
- ② 정보통신산업의 자본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각 하위분야별로 살펴볼 때도 그러하다.
- ③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정보통신산업의 세 분야간 사업체수의 차이나 종사자수의 차이보다 자본금 규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
- ④ 전체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1999년에 비해 2002년에 늘어난 분야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유일하다.
- ⑤ 업체당 종사자수와 업체당 자본금 규모가 모두 가장 큰 분야는 ‘정보통신기기’인 반면, 둘 다 가장 작은 분야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이다.

23. 다음 <그림>은 최근 국제유가상승이 우리나라의 주요산업별 산업간 연관계수지표(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최근 국제유가 10%상승의 산업간 연관계수 조정효과

〈 보 기 〉

- ㄱ. 최근의 유가상승은 우리나라 공공 및 기타 산업부문의 전방연쇄효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후방연쇄효과에는 약 6.1%의 유의한 효과를 미쳤다.
- ㄴ.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의 경우 철강제품이나 비금속광물제품 산업부문과 비교하여 볼 때 유가상승에 따른 효과가 감응도계수 변화와 영향력계수 변화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 ㄷ. 음식료품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 중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자체가 상당히 큰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ㄹ. 유가상승으로 운수 및 보관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약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ㅁ. 전기전자제품은 철강제품과 더불어 후방연쇄효과와 변화가 큰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neg$
③ $\neg, \rightleftharpoons$
⑤ $\neg, \sqsubset, \square$

24. 다음 <표>는 지난 기간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중앙행정기관별로 정리한 규제수 변동내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규제개혁 프로그램 실행 결과

중앙행정기관	최초등록 규제수	규 제 수 변 경						현재등록 규제수
		증 가			감 소		증 감 소 계	
		신 설	누락등록	기 타	폐 지	기 타		
조달청	27	4	2	0	22	0	-16	11
통계청	10	0	1	0	7	0	-6	4
병무청	29	3	0	0	2	1	0	29
경찰청	382	14	2	30	141	51	-146	236
기상청	28	1	0	0	14	1	-14	14
농촌진흥청	14	1	0	1	8	0	-6	8
산림청	254	17	8	58	118	85	-120	134
중소기업청	84	10	16	0	46	2	-24	60
특허청	60	1	7	0	27	2	-21	39
식품의약품 안전청	256	22	0	2	132	6	-114	142
철도청	53	0	2	0	26	1	-25	28
해양경찰청	122	21	0	0	57	13	-49	73
문화재청	133	8	3	0	55	2	-56	77
방송위원회	0	32	1	0	0	0	33	33

- < 정 보 >

- 규제폐지율 = 폐지한 규제수 / 최초 등록 규제수
- 순규제폐지수 = 감소한 규제수 - 증가한 규제수
- 순규제폐지율 = 순규제폐지수 / 최초 등록 규제수

- ① 경찰청의 규제폐지율은 조달청의 규제폐지율보다 낮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순규제폐지수는 산림청의 순규제폐지수보다 적다.
- ③ 기상청의 순규제폐지율은 특허청의 순규제폐지율보다 높다.
- ④ 위 <표>에서 최초 등록 규제수에 비해 현재 등록 규제수가 늘어난 중앙행정기관은 방송위원회뿐이다.
- ⑤ 규제폐지율에서 순규제폐지율을 차감해 보면 조달청이 통계청보다 작다.

주1)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에 대하여 수요 1단위가 발생할 때 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계수로 어떤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서 얼마나 수요하는지의 정도를 의미하며 후방연쇄효과라고도 한다.

주2) 이에 비하여 감응도계수는 어떤 특정 산업의 생산물이 타 산업에 얼마만큼 판매되는지를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전방연쇄효과라고도 한다. 감응도계수가 높다는 것은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많이 사용됨을 뜻하므로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5. 다음 <그림>은 1965년, 1985년, 2005년의 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각 가구의 생계책임자의 직업이 세대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은 2005년에 실시되었으며, 2005년 현재 응답자가 소속된 가구의 생계책임자 직업을 묻고, 해당 가구의 1985년 생계책임자 직업을 묻고, 또한 같은 가구의 1965년 생계책임자 직업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연령이 아주 높고 1965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당 가구의 생계책임자였다면 동일한 인물의 40년에 걸친 직업변화를 묻은 셈이 되고, 1965년과 1985년에는 아버지가 생계책임자였지만 2005년에는 아들이 생계책임자가 되었다면 직업의 세대간 변화를 묻은 셈이 된다. 연도별로 각각의 직업을 나타내는 원의 크기는 해당 연도에서 해당 직업군의 퍼센트에 비례하며, 연도간 화살표는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연도의 특정 직업군에서 최소한 20% 이상이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연도의 특정 직업군으로 이행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사무서비스직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 그 가구를 중산층으로 가정한다. <그림>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연도별 직업비중 변화

비스직(85년)

- ① 농어업 종사자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추가적인 증원이 매우 미미하다.
- ② 전체적으로 보아 지난 40년간 한국에서 중산층이 두터워졌다.
- ③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더불어 사무서비스직의 고용 비중이 커졌다.
- ④ 2005년 현재 생계책임자가 전문관리기술직에 종사하는 가구들 중 20% 이상은 1985년의 생계책임자도 같은 직종에 종사하였다.
- ⑤ 2005년 현재 생계책임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들 중 1985년 생계책임자도 농어업에 종사했던 가구가 20% 이하라고 말할 수 없다.

26. 다음 <표>는 전 세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차지하는 광물 보유량의 비중(A) 및 생산량의 비중(B)과 미국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 수입 의존도(C)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표>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추론 중 옳은 것은?

<표>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 현황

구 분	다이아몬드	백금	크롬	바나듐	망간	우라늄	금
전 세계 광물 보유량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 보유량(A)	67%	67%	56%	38%	33%	24%	자료 없음
전 세계 광물 생산량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 생산량(B)	7%	81%	84%	47%	71%	14%	55%
미국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 수입의존도(C)	15%	자료 없음	42%	15%	15%	15%	47%

-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망간 수출로 가장 많은 수입을 얻는다.
- ②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한다.
- ③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 생산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
- ④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생산하는 크롬의 반을 미국이 수입한다.
- ⑤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하는 망간의 양은 우라늄의 양과 같다.

27. A 제과회사는 최근의 케이크 판매 상황을 분석하여, 케이크 위에 프로스팅(frosting)을 많이 얹은 것일수록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사실로부터 고객들이 프로스팅을 더 많이 얹은 케이크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프로스팅을 많이 얹으면 적절한 습도가 더 오래 유지되어 케이크가 오랫동안 부드럽게 유지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A 제과회사에서는 프로스팅이 많을 때 고객들이 그 케이크를 더 좋아하는 것은 프로스팅이 더 많아서인지, 아니면 습도가 더 높아져 케이크가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인지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조사들을 실시하게 되었다. 다음의 세 가지 조사 결과를 해석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조사 1>

세 가지 유형 "a) 더 많은 프로스팅과 높은 습도의 케이크, b) 더 많은 프로스팅과 보통 습도의 케이크, c) 보통 프로스팅과 보통 습도의 케이크"를 만들어 고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고객들의 선호도는 "a>b, a>c, b=c"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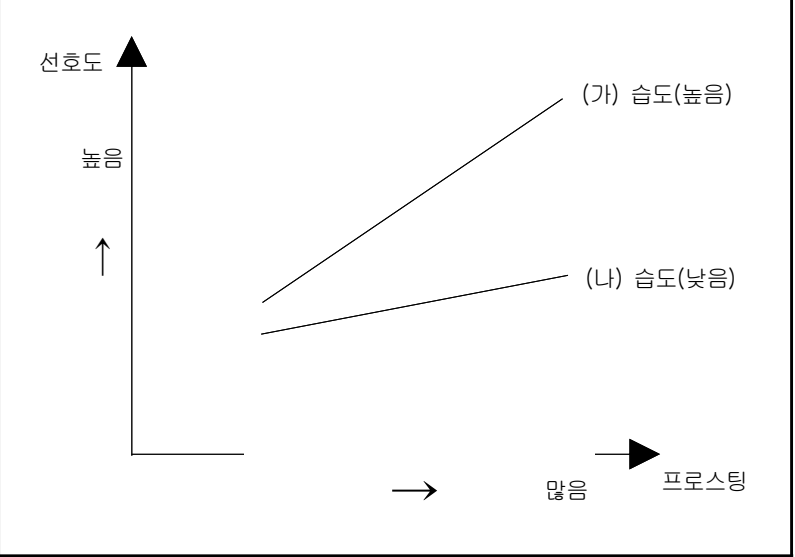
<조사 2>

네 가지 유형의 케이크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을 때, 고객들의 선호도는 각 cell 안에 표시된 바와 같이 "H(높음), M(보통), L(낮음)"로 나타났다.

		습 도	
		높음	낮음
프로스팅	많음	H	M
	적음	H	L

<조사 3>

다양한 유형의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직선 (가)는 습도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 프로스팅의 양에 따른 고객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선 (나)는 습도가 낮은 경우에 있어서 프로스팅의 양에 따른 고객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① <조사 1>, <조사 2>, <조사 3>의 결과는 모두 습도가 높아질 때 고객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조사 2>와 <조사 3>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습도가 높아질 때 고객 선호도가 높아지고, 선호도가 높아지는 정도는 습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조사 2>의 결과는 습도가 낮은 경우에만 프로스팅이 고객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고,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프로스팅이 고객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조사 3>의 경우에는 프로스팅과 습도가 각각 고객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프로스팅과 습도의 조합에 의해서도 고객 선호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조사 2>의 결과로는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 10 –

32. A 나라는 어떤 기간 동안 매년 인구증가량이 양수 값으로 일정하고 매년 조사망률이 일정했다고 한다. <그림 1>과 <그림 2>는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을 연도별로 나타낸 그림이고, <그림 3>과 <그림 4>는 조출생률을 연도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다음 <정보>를 이용하여 4개의 그림 중 A 나라의 그 기간 동안 인구 관련 통계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정 보 〉

- 국적변동으로 인한 인구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 인구증가량 = 해당연도의 인구 수 - 전년도的人口 수
- 전년대비 인구증가율(%) = (인구증가량 / 전년도人口 수) × 100
- 조출생률 = 한 해 인구 천명당 출생자 수
- 조사사망률 = 한 해 인구 천명당 사망자 수

<그림 1>

0%

<그림 2>

0%

<그림 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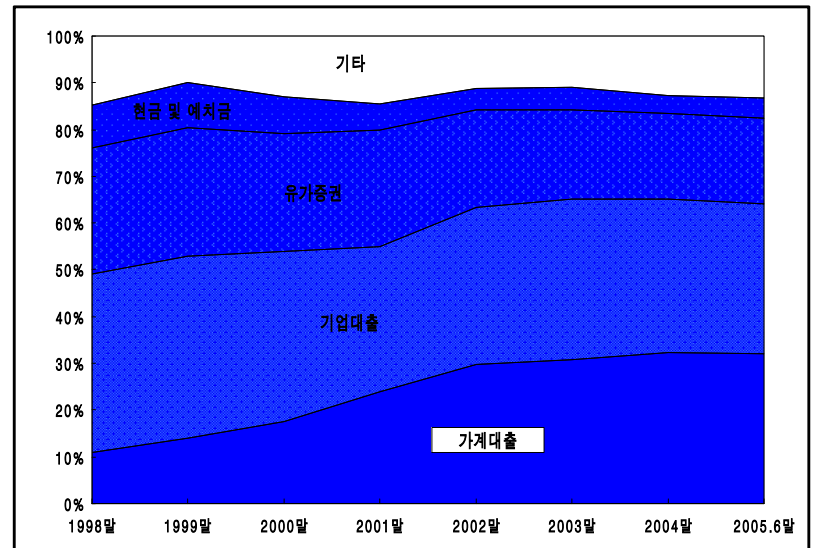
<그림 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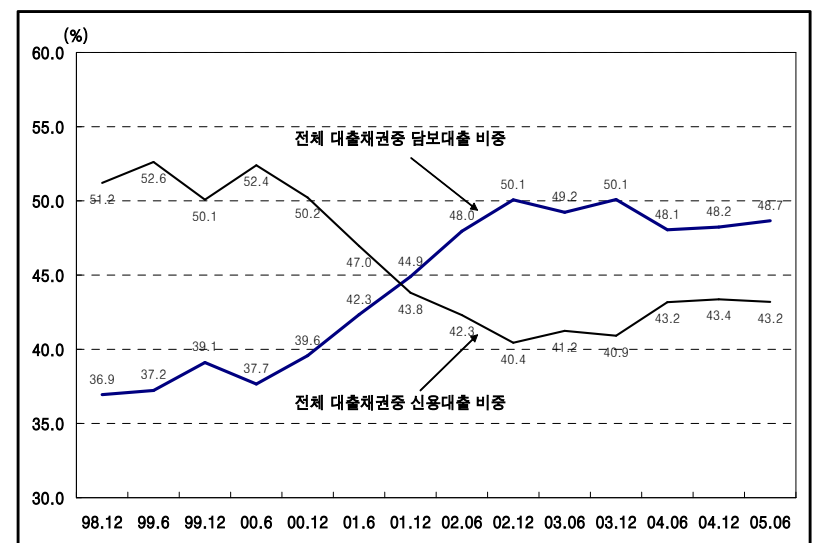
- ① <그림 2> ② <그림 1>, <그림 3>
③ <그림 1>, <그림 4> ④ <그림 2>, <그림 3>
⑤ <그림 2>, <그림 4>

33. 다음 <그림>은 일반은행의 자산운용 행태에 대한 자료이다. 각 자료에서 수평축은 연도 또는 연월을, 수직축은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일반은행의 자산운용구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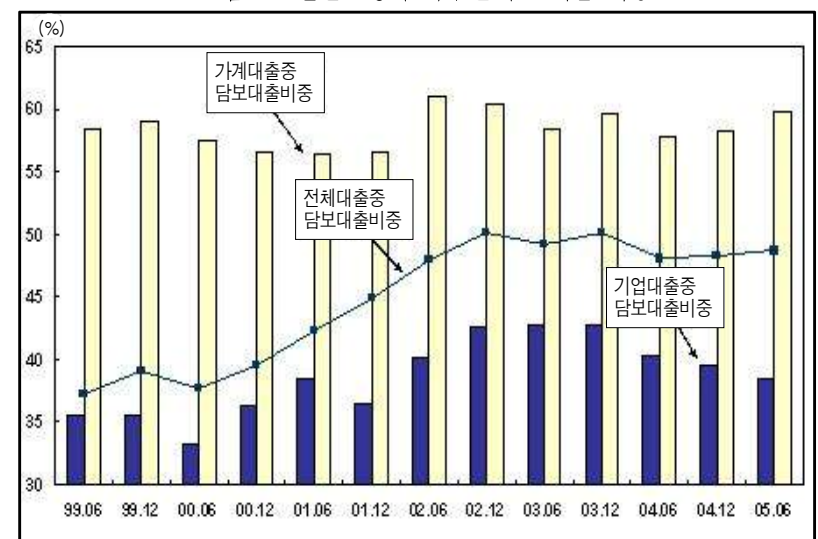


<그림 2> 일반은행의 담보대출 비중



주) 대출채권은 대출과 동일한 의미임.

〈그림 3〉 일반은행의 차주별 담보대출 비중



- < 보 기 >

- ㄱ. 기업대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 ㄴ. 2002년의 경우 전체 대출액(기업대출+가계대출) 중 가계의 담보대출액 비중이 1999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 ㄷ. 1999년에 비해 2001년 이후 전체 대출액(또는 대출채권) 중 담보대출의 비중이 신용대출의 비중을 추월하게 된 것은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의 비중에 비하여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 | | |
|----------------------|---------------------|
| ① $\perp$ | ② $\sqsubset$ |
| ③ $\neg, \perp$ | ④ $\neg, \sqsubset$ |
| ⑤ $\perp, \sqsubset$ | |

34. 다음 <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복지 항목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복지점수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갑’은 독신이며 근속년수가 38년이고, ‘을’은 근속년수는 10년이며 부인과 2명의 자녀 그리고 아버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병’은 근속년수가 25년이고 부인과 1명의 자녀가 있다. ‘정’은 근속년수는 5년이지만 부인과 3명의 자녀 그리고 아버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위의 네 경우에서 복지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누구이며 그 점수의 차이는 얼마인가?

〈표〉 맞춤형 복지점수 환산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전 직원 300P 일률 배정	근속년수 1년당 10P,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배우자 100P, 자녀·부모 1인당 50P, 최고 300P 배정

- ① 많은 사람 : 을, 적은 사람 : 갑, 점수의 차이 : 100P
- ② 많은 사람 : 을, 적은 사람 : 정, 점수의 차이 : 50P
- ③ 많은 사람 : 을과 병, 적은 사람 : 갑, 점수의 차이 : 100P
- ④ 많은 사람 : 을과 병, 적은 사람 : 정, 점수의 차이 : 50P
- ⑤ 많은 사람 : 갑과 병, 적은 사람 : 정, 점수의 차이 : 50P

35. X 자동차는 1년 후에 가격이 1,100만원이 될 예정이며, 만일 권리금을 즉시 지불하고 1년 후에 현물을 건네받는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현 시점에서 권리금을 1,0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한다. 국내 연간 대출금리는 6%, 예금금리는 3%로 고정되어 있고,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00원/달러이다. 그리고 1년 후 원/달러 환율은 현재에 비해 7% 상승한 1,070원/달러이고, 미국의 연간 대출금리는 7%, 예금금리는 4%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자. 다음 A, B, C 투자전략을 투자 수익금이 가장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것은? (단, 이 자동차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 보 기 〉

- A. 국내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X 자동차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1년 후에 자동차를 건네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은행 대출금을 갚는다.
- B. 국내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아서 모두 달러로 교환한 후 미국 은행에 예금, 1년 후 인출해서 전부 원화로 다시 바꾸고 은행 대출금을 갚는다.
- C. 미국 은행에서 2만 5,000달러를 대출해서 모두 원화로 교환, X 자동차 2대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내 은행에 예금한다. 1년 후 X 자동차 2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예금은 전부 인출, 일부를 환전해 미국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다.

- ① A - B - C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36. 다음 <표>는 2004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침해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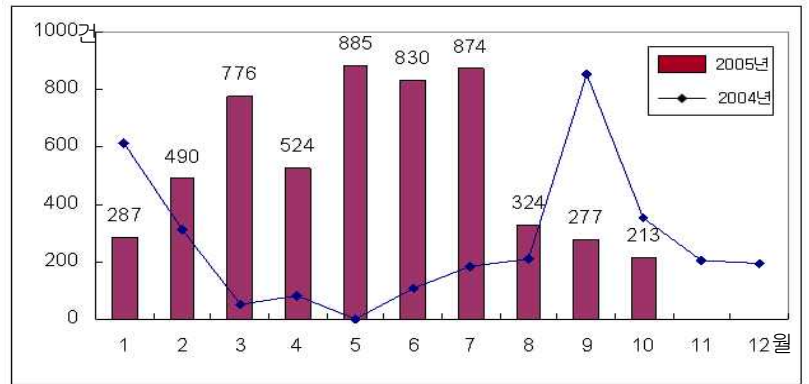
〈표〉 인터넷 침해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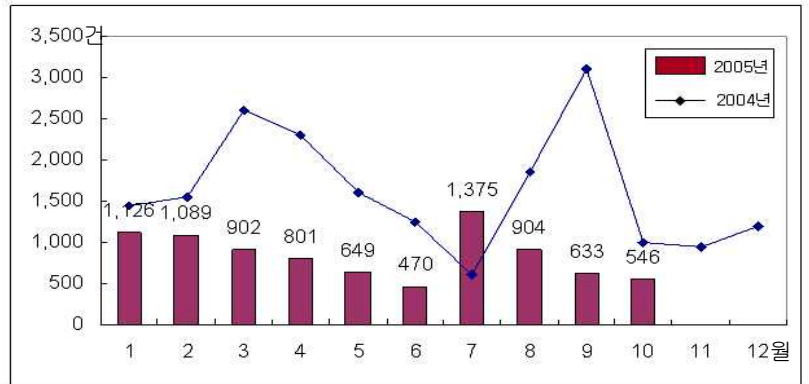
구 분	2004년 총계	2004년 (1~10월) 총계	2005년										2005년 (1~10월)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윜 바이러스	107,994	103,066	2,061	1,773	1,403	1,238	1,779	1,578	1,265	1,271	798	949	14,115
해킹사고처리	29,109	24,310	7,952	2,648	3,108	2,836	3,055	2,217	3,057	3,265	1,554	1,345	31,037
스팸윌레이	3,297	2,831	287	490	776	524	885	830	874	324	277	213	5,480
피싱	220	144	61	64	64	66	97	116	112	125	90	94	889
일반해킹	20,780	18,313	1,126	1,089	902	801	649	470	1,375	904	633	546	8,435
홈페이지변조	4,812	3,022	6,478	1,005	1,366	1,445	1,424	801	696	1,912	554	492	16,173
붓(Bot)			24.1%	26.4%	25.8%	24.6%	20.7%	18.1%	19.4%	19.7%	14.6%	13.6%	20.7%

주1) 일반해킹은 해킹사고 중 스팸릴레이, 피싱, 홈페이지변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 건수임.
주2) Bot은 전 세계 Bot 감염 PC 중 국내 Bot 감염 PC가 차지하는 비율임.

〈그림 1〉 스팸릴레이 사고건수



<그림 2> 일반해킹 사고건수



- < 보 기 >

7. 일반해킹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에 가장 사고가 적게 발생했던 달의 경우 2005년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반대로 2004년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달의 경우 2005년에는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 나. 2004년과 2005년의 같은 기간(1월~10월)을 비교해 볼 때 해킹사고처리건수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홈페이지변조의 급속한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다. 스캠릴레이의 경우 2004년에는 3월~7월까지가 가장 사고가 적게 발생했던 5개월이었으나, 2005년에는 같은 기간이 가장 많이 발생한 5개월을 차지하고 있다.
- 르. 2004년과 2005년의 같은 기간(1월~10월)을 비교해 볼 때 홈페이지변조 사고의 증가율이 일반해킹 사고의 감소율보다 크다.

- ① $\neg$, $\sqsubset$
 ③ $\sqsubset$, $\sqsubset$
 ⑤ $\neg$, $\sqsubset$, $\sqsubset$
- ② $\neg$, $\sqsubset$
 ④ $\neg$, $\neg$, $\sqsubset$

37. 다음 <표>는 각 국가의 경제성장단계와 최초 사회보험 도입시 농업 인구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이었고, 영국의 최초 사회보험은 1908년 무작출연금이었다. 일본은 1922년 건강보험을 도입하였고, 미국의 실질적인 사회보험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스웨덴은 1891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각 국가의 경제성장단계와 사회보험의 도입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각 국가의 경제성장단계와 사회보험 도입시 농업인구비율

국 가	도약단계	성숙단계	고도소비단계	사회보험 최초도입시 농업인구비율
영 국	1783~1802년	1850년	1930년	9%
미 국	1843~1860년	1900년	1920년	20%
독 일	1850~1873년	1910년	1940년	48%
일 본	1873~1900년	1940년	1955년	51%
스웨덴	1868~1890년	1930년	-	62%

- < 보 기 >

- ㉠. 영국과 미국의 사회보험 도입 시기는 경제성장단계에 비추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늦다.
- ㉡. 독일과 일본은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상태인 산업화 초기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 ㉢. 스웨덴은 경제성장단계에 비추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 ㉣. 스웨덴과 미국은 동일한 경제성장단계에서 사회보험을 도입하였으나, 도입 당시 농업인구비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 ① $\neg, \perp, \sqsubset$
 ② $\neg, \perp, \sqsubseteq$
 ③ $\neg, \sqsubset, \sqsubseteq$
 ④ $\perp, \sqsubset, \sqsubseteq$
 ⑤ $\neg, \perp, \sqsubset, \sqsubseteq$

38. 다음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고르면?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16개 관련 부처는 소관 종목별로 국가기술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기술사, 기능장 등 5개 등급, 570여개 종목으로 부처별 업무영역과 유사한 자격종목별로 소관 부처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및 검정의 시행권한 등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시행은 국방부가,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관리분야에 대하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검정시행을 주관하고 있다.

이들 국가기술자격의 필기시험장은 2001년에 1,054개가 이용되었고, 그중 실업계 고등학교가 685개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 대학교가 176개로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상설시험장은 44개로 비중이 아주 작은 편이다. 필기 시험위원으로는 2001년의 경우 교육기관 종사자, 공단직원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 실기 시험위원은 교육기관 종사자보다 공단 직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실기시험 채점방법은 본부에서 채점하는 중앙채점과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채점하는 현지채점으로 구분하며 검정시행 방법에 따라 필답형, 복합형, 작업형으로 분류한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중앙채점이 현지채점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고, 모든 필답형 시험은 중앙채점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작업형 시험은 현지채점이 주를 이룬다. 기술사는 필답형으로 중앙채점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반면 기능사의 경우는 현지채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중앙채점위원으로 동원된 인원은 총 76,681명으로 공단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채점위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2년마다 전국의 교육기관 및 산업체에 채점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

① 중앙채점관련 인력 활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시 험 현 황			
	계	채점위원	채점관리원	본부요원
계	126,340	76,681	47,103	2,556
2001	20,362	12,601	7,263	498
2000	21,582	13,134	7,915	533
1999	22,352	13,462	8,439	451
1998	25,122	15,547	9,153	422
1997	19,441	11,615	7,455	371
1996	17,481	10,322	6,878	281

② 실기시험 채점방법별 종목현황 (단위 : 개)

구 분	총 계				중 앙 채 점				현 지 채 점			
	계	필답	복합	작업	계	필답	복합	작업	계	필답	복합	작업
총 계	570	164	114	292	313	164	113	36	257	-	1	256
기술사	97	97	-	-	97	97	-	-	-	-	-	-
기능장	33	22	1	10	24	22	1	1	9	-	-	9
기 사	102	23	52	27	85	23	52	10	17	-	-	17
산업기사	134	21	49	64	81	21	48	12	53	-	1	52
기능사	204	1	12	191	26	1	12	13	178	-	-	178

③ 필기시험장 활용현황 (단위 : 개)

연도	계	대학교	실업고	중학교	훈련기관	상설시험장
계	3,561	571	2,479	239	177	95
1999	1,217	198	876	70	63	10
2000	1,290	197	918	74	60	41
2001	1,054	176	685	95	54	44

④ 필기 시험위원 활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공단직원	훈련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타
계	258,063	49,172	13,756	147,071	44,058	4,006
1999	89,750	14,143	5,197	52,812	15,805	1,793
2000	90,584	16,779	4,815	51,231	16,662	1,097
2001	77,729	18,250	3,744	43,028	11,591	1,116

⑤ 실기 시험위원 활용현황 (단위 :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필답	작업	필답	작업	필답	작업	필답	작업	필답	작업
계	21,775	96,971	23,831	152,311	19,414	175,641	17,318	157,567	8,478	127,105
대학교직원	1,003	10,030	1,444	20,238	1,844	20,856	1,633	28,296	639	19,805
고등학교 교 직 원	10,146	48,109	11,429	80,103	11,098	85,697	8,739	69,936	4,179	55,498
직업학교 교 직 원	3,129	14,314	2,499	20,786	913	21,006	2,098	24,184	800	16,403
산업체직원	2,137	9,346	1,036	10,972	1,656	18,732	480	8,654	465	12,706
공단직원	5,357	15,172	7,423	20,212	3,903	29,350	4,368	26,497	2,395	22,693

39. 다음 <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범죄유형별 범죄자수를 연령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연도/범죄유형/연령별 범죄자 수 (단위 : 명)

연령	연도	형법범	재산범	강력범	위조범	과실범	기타 형법범	특별법범
20세 이하	2000	47,867	38,812	6,849	546	226	1,160	120,468
	2001	42,057	33,893	5,835	621	180	1,313	116,949
	2002	90,734	39,290	49,310	773	163	1,028	52,120
	2003	80,993	37,571	41,670	669	125	845	38,611
21~ 30세	2000	79,623	50,133	14,472	1,841	932	5,541	368,919
	2001	83,553	54,525	14,026	1,873	900	6,077	390,770
	2002	187,357	62,026	111,689	1,724	709	6,221	285,835
	2003	186,709	72,883	102,211	1,727	655	6,001	260,857
31~ 40세	2000	164,814	92,713	25,347	4,612	2,257	12,445	477,002
	2001	158,654	89,831	24,532	4,368	2,145	13,043	490,873
	2002	259,450	90,182	129,823	4,135	1,863	13,101	357,519
	2003	257,777	98,260	126,766	3,925	1,841	12,739	336,340
41~ 50세	2000	140,846	76,163	22,610	4,285	1,807	12,390	351,183
	2001	145,021	77,658	23,890	4,212	1,970	13,117	383,482
	2002	234,978	81,166	110,541	4,105	1,915	13,525	305,578
	2003	247,984	89,110	119,278	4,338	1,982	13,982	308,097
51~ 60세	2000	57,145	30,225	9,734	2,044	893	6,846	120,553
	2001	56,559	29,448	9,938	2,060	861	6,860	127,240
	2002	79,015	29,224	33,394	1,887	805	6,436	102,095
	2003	83,050	30,754	36,731	1,928	836	6,538	102,072
61~ 70세	2000	17,073	8,505	3,284	831	272	2,666	29,274
	2001	17,892	8,757	3,647	823	269	2,874	30,661
	2002	23,228	8,783	9,071	756	280	2,811	26,588
	2003	24,879	9,212	10,288	789	298	2,788	27,328
71세 이상	2000	3,381	1,530	671	206	91	719	4,643
	2001	3,322	1,451	747	174	77	707	4,644
	2002	3,865	1,453	1,319	174	72	699	3,846
	2003	3,807	1,380	1,444	161	61	615	3,745

〈 보 기 〉

ㄱ.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범죄자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31~40세의 특별법범이다.

ㄴ. 2003년도에 50세 이하에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범죄자의 수가 증가한 범죄유형은 네 가지이다.

ㄷ. 모든 범죄유형에서 2002년에 비해 2003년의 범죄자 수가 증가한 연령층은 41~50세뿐이다.

ㄹ. 2003년의 기타형법범의 수는 20세 이하부터 31~40세까지만 연령층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41~50세부터 71세 이상까지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ㅁ. 2002년도 모든 범죄유형에서 범죄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층은 71세 이상이고 두 번째로 적은 연령층은 61~70세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40. 다음 <표>는 국회사무처가 20명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도력(Q1), 선견성(Q2), 책임감(Q3), 그리고 발표력(Q4)을 각각 상·중·하로 나누고 상은 5점, 중은 3점, 하는 1점을 부여하여 평가한 항목별 점수이다. 그리고 국회사무처는 Q1, Q2, Q3, Q4의 항목에 대해 각각 W1, W2, W3, W4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평균함으로써 각 응시자의 종합평점을 계산한 다음, 각 응시자의 최종 면접점수를 $10 + (1 - \frac{1}{\text{종합평점}}) \times 10$ 으로 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각 항목의 가중치가 W1=0.1, W2=0.3, W3=0.2, W4=0.4라면 <표>에 있는 응시자 A의 종합평점은 $(0.1 \times 1) + (0.3 \times 3) + (0.2 \times 5) + (0.4 \times 5) = 4.0$ 이므로 최종 면접점수는 $10 + (1 - \frac{1}{4.0}) \times 10 = 17.5$ 이다. <보기>와 같이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응시자 20명의 최종 면접점수를 계산하였을 때, 응시자 K의 최종 면접점수가 단독 1위가 되는 가중치 부여방법을 모두 묶은 것은?

〈표〉 항목별 평가점수

응시자\항목	Q1	Q2	Q3	Q4	합
A	1	3	5	5	14
B	3	3	5	1	12
C	5	1	3	5	14
D	5	5	1	3	14
E	1	3	1	5	10
F	3	1	5	5	14
G	5	3	1	5	14
H	5	1	1	5	12
I	1	5	5	3	14
J	5	1	3	3	12
K	1	5	3	5	14
L	1	3	3	5	12
M	5	3	1	3	12
N	3	5	5	1	14
O	1	1	5	5	12
P	5	1	5	3	14
Q	5	3	3	1	12
R	1	5	5	1	12
S	5	5	3	1	14
T	3	1	3	3	10

· < 보 기 >

- | | | | | |
|----|----------|----------|----------|---------|
| ┐. | W1=0.1, | W2=0.2, | W3=0.3, | W4=0.4 |
| └. | W1=0.2, | W2=0.3, | W3=0.2, | W4=0.3 |
| ┘. | W1=0.1, | W2=0.4, | W3=0.2, | W4=0.3 |
| ┙. | W1=0.2, | W2=0.3, | W3=0.3, | W4=0.2 |
| □. | W1=0.25, | W2=0.25, | W3=0.25, | W4=0.25 |

- ① ㄴ, ㅈ

③ ㄱ, ㄴ, ㅈ

⑤ ㄴ, ㅈ, ㅊ

② ㅈ, ㅊ

④ ㄴ, ㅈ, ㅊ